MACRO
VIEW

2026. 4. 3

Global Macro Team

허진욱 Chief Economist
james_huh@samsung.com

정성태 Senior Economist
sungtai.chung@samsung.com

양지성 Economist
jisung.yang@samsung.com

금종호 Economist
jongho.keum@samsung.com

구민정 Economist
mj.gu@samsung.com

한성민 Research Associate
sungmin0108.han@samsung.com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Week Ahead: 4월 둘째 주

고유가는 제조업 충격; 내수 부진한 중국 경제 이중고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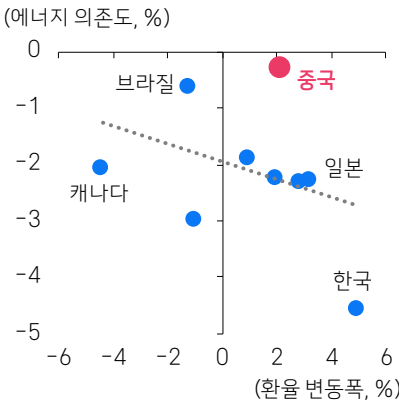
- 중국 경제는 높은 에너지 자립도로 인해 고유가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 다만,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높아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는 작지 않음
- '26년에도 주택시장 둔화와 소비 부진은 지속될 전망. 특히, 전쟁 이후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중국 장기국채 금리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시사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양호

전쟁 직전인 2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각국의 통화가치(달러 대비)는 하락했다. 불확실성 확대가 '안전 자산'인 미달러에 대한 선호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위안화의 상대적 강세이다. 2월 27일 대비 4월 3일 위안화는 달러 대비 -0.3%의 약세에 그친 반면, 유로화는 -2.2%, 엔화는 -2.3%, 원화는 -4.6%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각국의 에너지 수급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다. '24년 기준 중국의 GDP 대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 비중은 2.1%였고, 전력원에서도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신재생 35.1%, 석탄 56.1%). 현재는 에너지의 가격보다는 수급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외환시장의 반응은 합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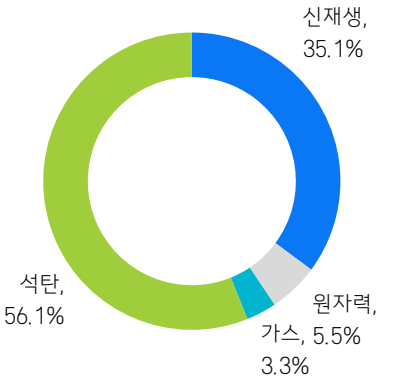
당사도 금융시장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번 고유가 국면에서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판단한다. 에너지 수급 구조에서의 상대적인 강점과 함께 중국 정부는 가격 급등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이번 사태의 경제적인 성격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너지 가격 급등은 서비스 부문을 사실상 마비시켰던 팬데믹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사태가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대로 단기간에 마무리될 경우 에너지 수급 구조 측면에서 중국의 상대적인 이점은 퇴색될 것이다. 반면,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중국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그만큼 타격이 클 것이다.

최근 환율 변화는 에너지 의존도가 결정



참고: x축은 GDP 대비('24년 기준), y축은 2.27일 대비
참고: Bloomberg

중국의 전력원 구성 비율



참고: '24년 기준
자료: BNEF, 삼성증권

고유가 충격은 제조업에 집중; 높은 수출 및 제조업 비중으로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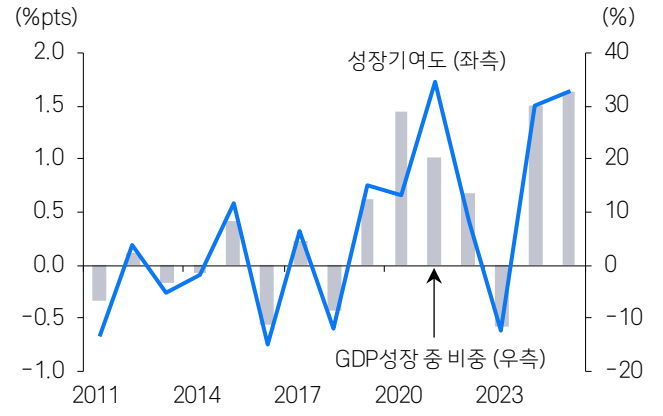
중국 경제는 내수의 극심한 부진으로 대외의존도가 유례없이 높아져 있다. 예를 들어, '12~19년 평균 중국 성장에서 순수출의 기여율은 0.0%였으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여 '25년에는 32.7%로 높아졌다(성장률 5.0% 중에서 순수출 기여도는 1.6%pts). '26년 1~2월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6.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것도 수출 증가율이 21.8%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고유가로 인해 대외 수요가 둔화될 경우,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 수출에서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동남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4%로 높아졌다는 점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고유가 장기화 국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에너지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동남 아시아 각국은 주 4일 근무, 재택 근무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수요의 축소와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충격의 성격을 감안할 때, 중국의 높은 제조업 비중도 마찬가지로 고유가 장기화 국면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World Bank에 따르면, 중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달했다('24년 기준). 경제 규모 상위 20개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원유의 최종적인 수요는 수송용 비중도 높으나, 플라스틱 등의 중간재를 통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 이미 국제 유가 급등의 영향은 일부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26년 1~2월 전년 대비 8.0% 증가했던 주요 20개 항구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3월에는 -5.9%를 기록했다. 또한, 4월 3일 발표된 RatingDog의 3월 제조업 PMI는 2월 52.1에서 50.8로 크게 하락했으며, 특히 수출 주문지수는 54.0에서 50.4으로 둔화했다. 해당 PMI는 표본에서 중소 및 수출 그리고 연안지역 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글로벌 수요 둔화의 징후이다.

주택시장 부진과 이구환신 효과 축소로 내수 부진 지속; 디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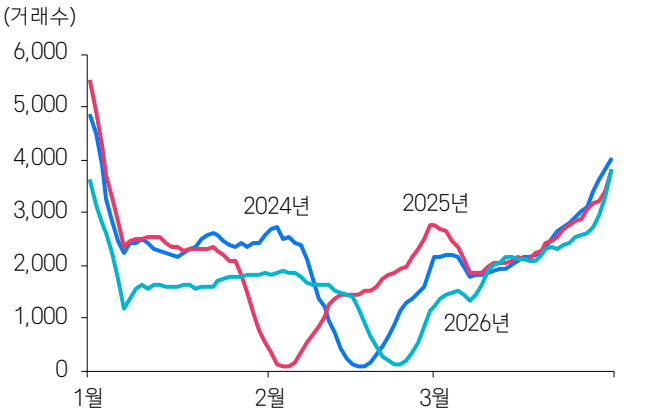
한편, 중국 내수의 부진은 무엇보다 주택시장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년 8월 부동산 레버리지 규제('3 Red Line')으로 촉발된 중국 주택시장의 하락세는 여전히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주택착공은 '26년 2월에는 '20년 10월 고점 대비 -82%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반등의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한, 주택시장의 선행지표인 거래 건수는 '26년 3월 전년 대비 -15.3%를 기록했으며, 그나마도 신축보다는 구축의 거래 비중이 훨씬 높다. 물론,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에서 규제 완화 이후 거래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을 판단한다.

팬데믹 이후,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크게 증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삼성증권

중국 주택거래는 여전히 침체가 극심했던 '24~25년 수준



참고: 7일 이동평균
자료: WIND, 삼성증권

주택시장 부진과 함께 내구재 소비를 지지했던 이구환신 정책의 효과도 사실상 사라지면서, '26년 상반기 소매판매는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와 가전 소비는 전년 대비 0.8%와 30.7%를 기록한 이후 하반기를 지나면서 증가율은 크게 둔화하여 연간으로는 -1.5%와 11.0%에 그쳤다. 예산의 소진의 영향도 있으나, 이구환신 정책은 사실상 구매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만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서비스 지출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주택임차료를 제외하면 서비스 소비 비중은 30% 내외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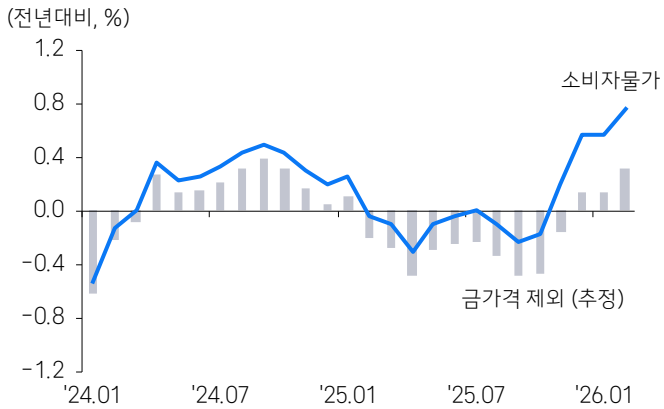
그에 따라 '25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당사가 주목하는 점은 소비자물가 중에서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상승률이 유독 높다는 사실이다. 해당 품목은 '25년 9.3%, '26 1~2월에도 전년 대비 14.3%를 기록했다. 이는 금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추정되며, 그에 따라 실질적인 '26년 1~2월의 물가 상승률은 0.8%보다 낮은 0.3%에 그쳤을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에서 22.1%를 차지하는 주거비 항목은 '22년 이후 줄곧 전년 대비 -0.2%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주택 공급 과잉이 해소되기까지는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주거비 항목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요인으로 판단된다. 2월 27일 이후 중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4bps 상승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41개월째 전년 대비 (-)를 기록 중인 생산자물가는 늦어도 4월에는 소폭 (+)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내수 회복이나 반내권화(反內卷化)보다는 최근의 대외 수요 확대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이 주된 원인이다. 사실 '반내권화' 정책이 언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태양광을 제외하면, 지방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중국의 수출 단가는 '24년 -5.5%, '25년 -2.8%, '26년에는 1~2월 -2.5%를 기록하며, 소비 내구재 물가보다 양호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자물가의 (+)전환이 결국 기업 부문의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이란 사태 이후 중국 자산(위안화 및 장기 국채)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현상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을 반영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한다. 그에 따라 당사는 '26년 중국 성장률 전망 4.6%, 연말 위안/달러 전망 6.7로 유지하지만,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전망의 하향 리스크는 주요국들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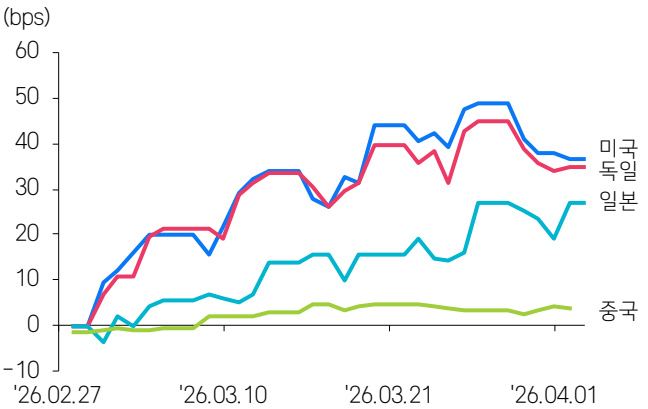
(정성태)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과대 추계되었을 가능성 높아



참고: 기타 상품 및 서비스 항목 = 금값 변동으로 가정, 3개월 이동평균
자료: 국가통계국, 삼성증권

전쟁 전후, 주요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폭



참고: 2월 27일 대비 각국의 금리 변동폭
자료: Bloomberg, CEIC, 삼성증권

Preview

주요 지역별 정책 및 경제 지표 Preview

미국: 다음 주에는 3월 ISM 서비스업 지수(6일), 2월 내구재 신규주문(7일), 2월 개인소득 및 소비, PCE 물가지수(9일), 그리고 3월 CPI(10일) 등이 발표 예정이다. 3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전월(56.1)보다 소폭 둔화된 54.9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란 사태의 부정적인 영향이 아직 미국 서비스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서비스 가격 지수는 전월에 비해 상승이 예상된다. 한편, 2월 운송 제외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0.5%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proxy인 핵심 내구재 주문도 전월 대비 0.6%증가가 예상된다. 2월 개인소득과 소비가 각각 전월 대비 0.3%와 0.5%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월 headline과 core PCE 물가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0.4%와 0.3%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core PCE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월의 3.1%에서 2월 2.9%로 둔화가 예상된다. 한편, 3월 headline과 core CPI는 각각 전월 대비 1.0%와 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headline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core로의 전이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중국: 다음 주에는 3월 물가지표(10일)가 발표될 예정이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2%로 지난 2월(1.3%)과 비슷할 전망이다.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 3월 휘발유 가격은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식품과 서비스(항공, 여행 등) 가격이 춘절 영향 해소로 둔화하면서 소비자물가 headline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3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대비 0.5%로 42개월만에 (+)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 에너지 및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다. 또한, 생산자물가 전월 대비 상승률과 동행하는 제조업 PMI 출고 가격 지수도 크게 상승하면서 상방 압력이 확대되었음을 나타냈다.

한국: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 통화정책회의(10일)가 예정되어 있다. 당사는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동결을 예상한다. 이는 성장과 물가에서 서로 상반되는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wait-and-see'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유가 충격에 따른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큰 편이다. 한편, 당사는 불확실성이 완화된 후 금리를 조정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 불확실성 하에서 금리를 조정하는 정책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한다.

금융시장 Preview

글로벌 금융시장: 강경한 어조의 트럼프 연설과 이란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조기 휴전 기대가 약화되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재차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가 소폭이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40여개국이 참여하는 호르무즈 개방 회의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란 사태 초기 매파들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Fed 금리 인상 및 BOE/ECB의 연내 100bp 인상 가능성이 선물시장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공급 측 유가 충격에 대해 "look-through" 원칙과 "wait-and-see" 모드 유지를 강조한 31일 파월 의장의 발언과 신중한 대응을 언급한 ECB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 경계감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당사는 이란 사태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고 '22~23년 에피소드에 비해 주요국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점을 감안할 때, ECB의 4월 동결 가능성이 아직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최근 주요국의 금융 여건이 일제히 악화되면서 이미 2~3회 내외의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금리 인상의 시급성을 완화시키고, 과도한 긴축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향후 1~2주 동안 미-이란 간 협상의 진척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 데이터 변화에 주목할 것이다. 만약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대로, 4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가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이란 사태 이전의 non-US 증시의 아웃퍼폼과 달러 약세가 점차 재개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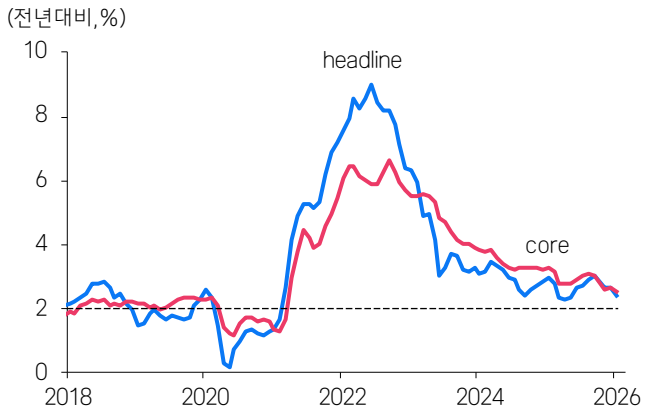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Ahead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전기	영향	비고
정책 지표							
한국	4월 10일	4월 금통위	-	-	-	-	• 연내 동결 전망 유지 (기준금리 2.50%)
경제 지표							
미국	4월 6일	3월 ISM 서비스업 지수	지수	54.9	56.1	상	• 전월 대비 소폭 둔화, 가격지수는 상승 예상
	4월 7일	2월 내구재주문	전월 대비	-1.0%	0.0%	상	
		2월 자본재주문	전월 대비	0.6%	-	상	
	4월 9일	2월 개인소득	전월 대비	0.3%	0.4%	상	• 1월 대비 양호한 상승 예상
		2월 개인소비	전월 대비	0.5%	0.4%	상	
		2월 PCE 물가	전월 대비	0.4%	0.3%	상	
		2월 핵심 PCE 물가	전월 대비	0.3%	0.4%	상	
	4월 10일	3월 CPI	전월 대비	1.0%	0.3%	상	•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상승 전망
유로존	4월 7일	2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0%	0.1%	상	
독일	4월 9일	2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6%	-0.5%	상	
중국	4월 9일	3월 신규 위안화대출(누적)	십억 위안	9,110.0	5,610.0	중	
		3월 총 사회융자 규모(누적)	십억 위안	15,149.0	9,600.0	중	
	4월 10일	3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0.5%	-0.9%	상	
		3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1.2%	1.3%	상	
일본	4월 8일	2월 명목 임금 상승률	전년 대비	2.7%	3.0%	상	
	4월 10일	3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2.3%	2.0%	상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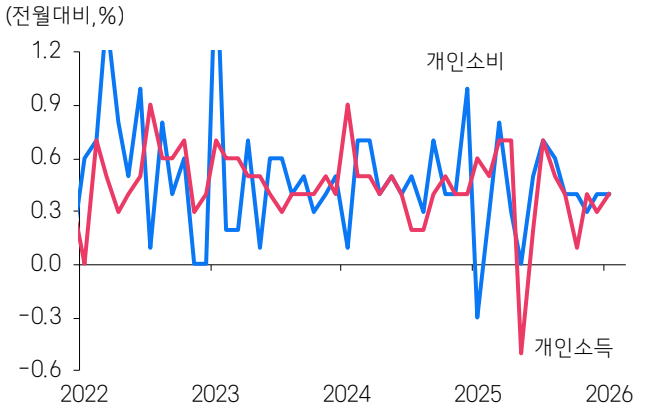
〉〉 차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

미국 CPI: Headline vs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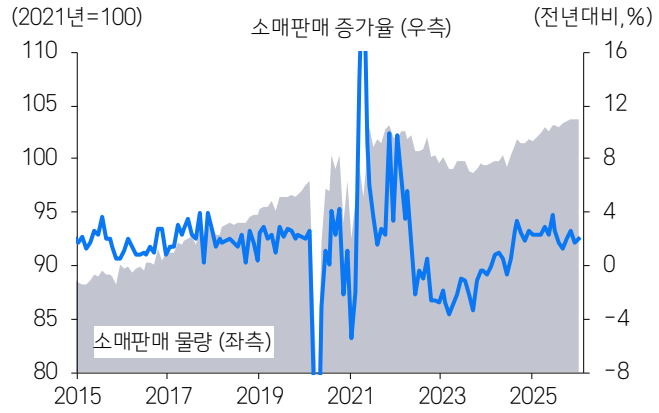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미국 개인소비 vs. 개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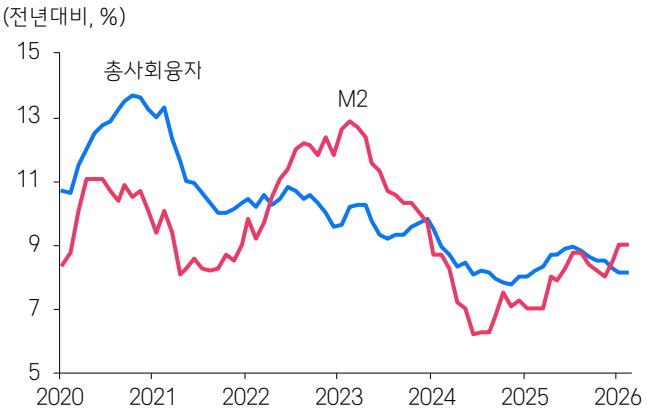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유로존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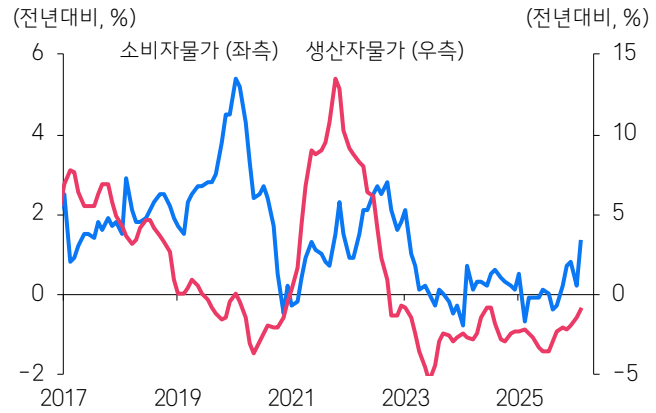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중국 총사회융자 vs. M2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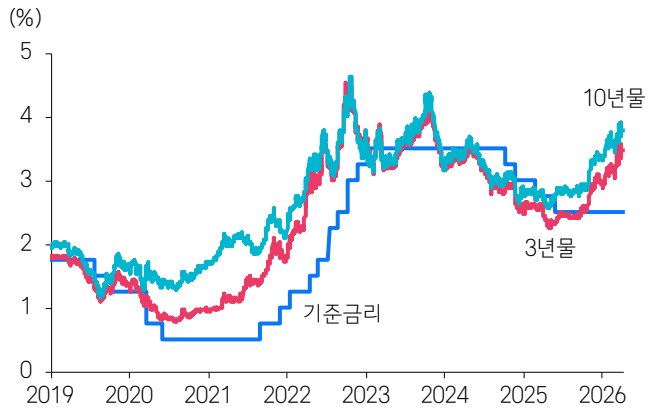
참고: 총사회융자는 잔액 기준
자료: 중국 인민은행, 삼성증권

중국 물가지표 추이: 소비자물가 vs. 생산자물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한국 기준금리 및 국채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Review

주요 Event와 시사점

미국: 이번 주에는 2월 소매판매와 3월 ISM 제조업 지수(각각 4월 1일)가 발표되었다. 2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로 전월 및 시장예상(각각 -0.1%, 0.5%, Bloomberg 기준)을 상회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판매가 1.2%(이하 전월 대비)로 1월(-0.7%) 대비 크게 개선되었으며, 의류(2.0%), 휘발유(0.9%) 등 판매도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컸다. 변동성이 큰 자동차, 휘발유, 건축자재, 음식 서비스를 제외한 핵심 소매판매도 0.5% 증가하면서 양호한 소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다음으로 같은 날 발표된 3월 ISM 제조업 지수는 52.7로 전월(52.4) 대비 소폭 상승했다. 세부 지수에서 주목할 점은 제조업 가격 지수가 78.3으로 '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신규주문 지수의 경우 53.5로 2개월 연속 낮아졌으나 여전히 기준선(50)을 상회했으며 고용 지수는 48.7로 전월(48.8) 위축 국면을 지속했다. 이란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나, 고유가 국면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될 경우, 점차 제조업 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럽: 이번 주에는 3월 소비자물가(31일)가 발표되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5%를 기록해 2월(1.9%) 대비 상승하였다. 핵심물가는 2.3%로 2월(2.4%)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에너지 부문이 2월 -3.1%에서 3월 +4.9%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물가가 3.4%에서 3.2%로 둔화되며 전체 물가 상승폭을 일부 제한했다. 3월 소비자물가가 2.5%에 그쳐 시장 예상(2.6%)을 소폭 하회했으나, 공급 충격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온전히 반영되기까지는 6개월 내외 소요될 것이다. 당사는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3%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한다.

중국: 이번 주에는 3월 국가통계국 PMI(3월 31일), 3월 RatingDog 제조업 PMI(1일), 서비스업 PMI(3일)이 발표되었다. 중국 제조업은 완만한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3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는 50.4, RatingDog 제조업 PMI는 50.8을 기록했으며, 평균으로 보면 50.6으로 지난 2월(50.5)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제조업 PMI에서 주목할 부분은 투입 가격 지수와 출고 가격 지수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및 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아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국가통계국 PMI의 투입 가격과 출고 가격은 각각 63.9와 55.4를 기록하면서 지난 러-우 전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RatingDog도 각각 57.0과 52.2로 지난 4년여래 가장 높았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 생산자 물가도 예상보다 빠르게 전년 대비 (+)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3월 국가통계국 비제조업 PMI는 50.1로 지난 1~2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서비스업 PMI가 2월 49.7에서 3월 50.2로 상승했으며, 철도 운수, 방송, 금융, 보험 등 업종이 양호했다. 건설업 PMI도 48.2에서 49.3으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50) 아래였다. RatingDog의 서비스업 PMI는 일시적인 춘절 영향이 사라지면서 52.1로 지난 1월(52.3)과 비슷했다.

한국: 이번 주에는 3월 수출(1일)과 3월 소비자물가(2일)가 발표되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48.3%로 당사(46.0%) 및 금융시장(47.3% Bloomberg 기준, 이하 전년 대비) 전망에 부합했다. 3월의 급증은 반도체(151.4%)와 컴퓨터(주로 SSD, 189.2%)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그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으로 증가율이 확대된 영향이다. 아울러, 중동의 지정학적 영향은 석유제품 수출 증가(54.9%)가 해당 지역 수출 감소(-49.1%)를 상회하면서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유 및 나프타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둔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는 2.2%로 2월 수준(2.0%)를 소폭 상회했다(시장 예상 2.3%). 이는 주로 글로벌 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9.9%(이하 전년 대비)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2%로 2월(2.3%)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개인서비스는 콘도 이용료, 국내 항공료 등 여행 관련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2월 3.5%에서 3월 3.2%로 낮아졌다.

일본: 이번 주 3월 도쿄 소비자물가(31일)가 발표되었다. 통상 일본 전역의 물가를 선행하는 도쿄 소비자물가는 3월 전년 대비 1.3%로 전월(1.5%, 이하 전년 대비) 대비 둔화되었으나 하락 폭이 컸던 신선식품과 에너지 제외 핵심물가는 2.3%로 2월(2.4%) 대비 소폭 둔화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선식품이 -4.8%로 4개월 연속 하락함에 따라 식품이 3.2%로 전월(3.8%) 대비 낮아졌으며, 정부 정책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도 -7.5%로 전월(-9.2%)에 이어 하락했다. 반면, 주거비는 1.4%로 견고하게 유지되었으며, 교통/통신 및 여가도 각각 2.7%와 2.6%로 전월(각각 1.8%와 2.4%)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분기 단기경제관측조사(이하 '단칸') 결과도 발표되었다(4월 1일). '26년 1분기 제조 대기업 업황 판단지수는 17%p로 '21년 4Q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중동 불안에도 기업 경기가 완만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제조업 업황 지수도 36%p로 전분기와 같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단칸 지수란 기업 경영자들이 체감하는 기업 경기 동향 및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로 BOJ가 분기별로 집계해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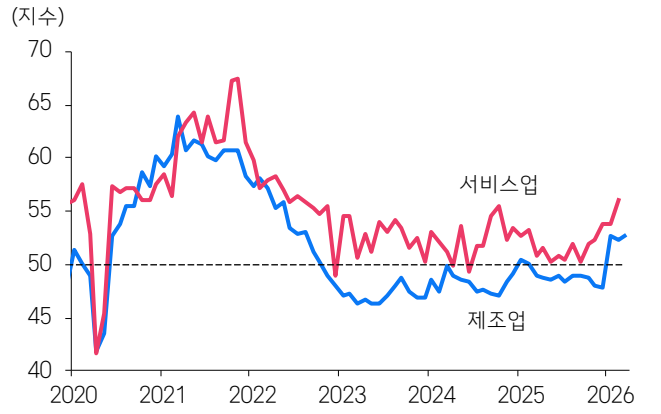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Review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실제치	전기	예상 대비	비고
경제 지표								
미국	3월 31일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지수	87.9	91.8	91.0	Above	
		2월 JOLTS 구인 건수	천 명	6,890.0	6,882.0	7,240.0	Below	
	4월 1일	3월 ADP 고용	천 명	40.0	62.0	66.0	Above	
		2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5%	0.6%	-0.1%	Above	• 양호한 소비 증가 추세 지속
		3월 ISM 제조업 지수	지수	52.3	52.7	52.4	Above	• 가격 지수 '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4월 3일	3월 비농업고용	천 명	65.0	-	-92.0	-	
		3월 시간당 임금	전월 대비	0.3%	-	0.4%	-	
		3월 실업률	%	4.4%	-	4.4%	-	
유로존	3월 30일	3월 경제신뢰지수	지수	96.7	96.6	98.2	Below	
	3월 31일	3월 CPI	전년 대비	2.6%	2.5%	1.9%	Below	• 에너지 상승에도, 서비스 물가 둔화
		3월 Core CPI	전년 대비	2.4%	2.3%	2.4%	Below	
독일	3월 30일	3월 CPI	전월 대비	1.1%	1.1%	0.2%	In-line	
중국	3월 31일	3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전년 대비	50.1	50.4	49.0	Above	• 투입 및 출고 가격 지수가 크게 상승
		3월 국가통계국 비제조업 PMI	전년 대비	49.9	50.1	49.5	Above	
일본	3월 31일	3월 도쿄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1.6%	1.4%	1.5%	Below	
한국	4월 1일	3월 수출	전년 대비	44.8%	48.3%	28.7%	Above	•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급증
		3월 수입	전년 대비	15.4%	13.2%	7.5%	Below	
	4월 2일	3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2.3%	2.2%	2.0%	Below	
		3월 핵심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2.1%	2.2%	2.3%	Abov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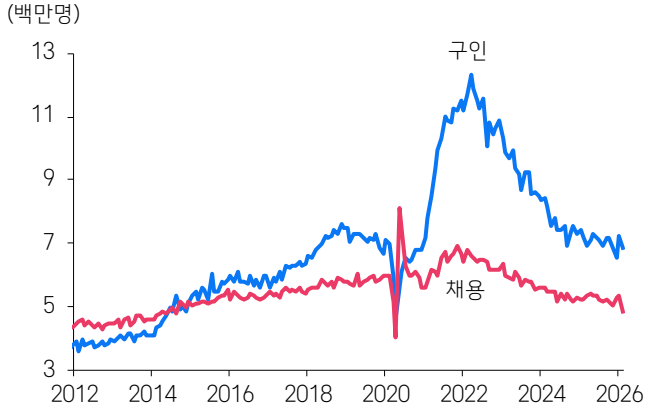
〉〉 금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미국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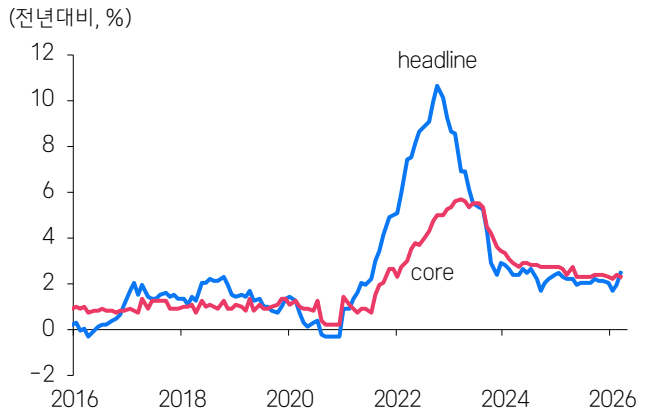
자료: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미국 JOLTS 구인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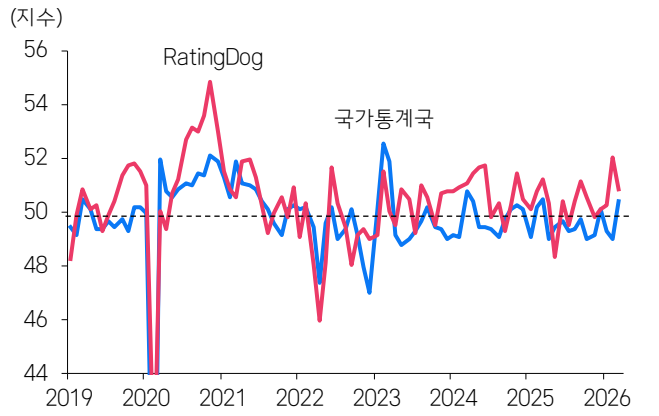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유로존 CPI: headline vs.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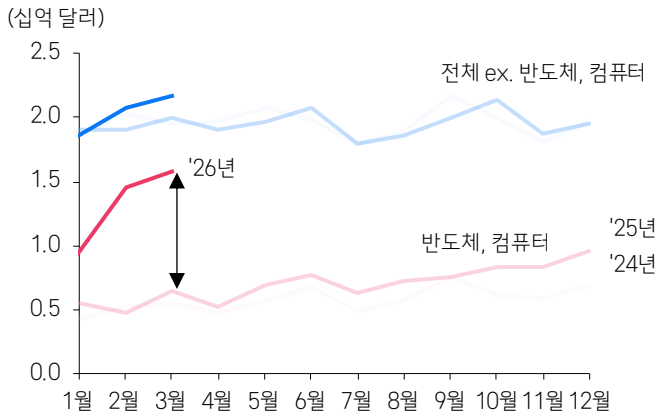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중국 제조업 PMI 추이: 국가통계국 vs. RatingD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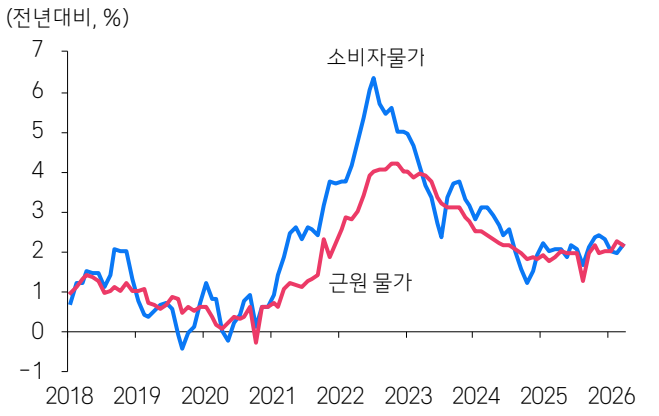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S&P Global

"26년 한국 수출 증가는 반도체와 컴퓨터가 주도



참고: 일평균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증권

한국 소비자물가 추이: headline vs. core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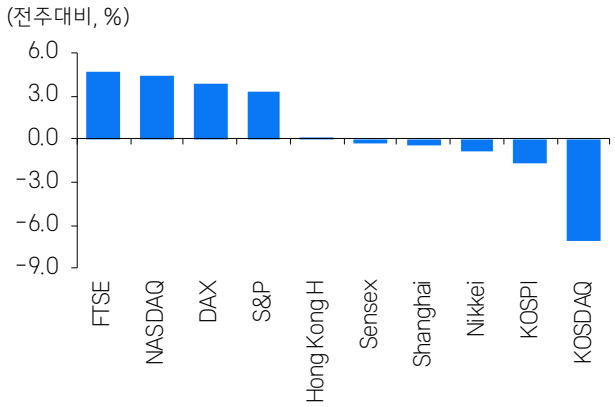
금융시장 동향 (4월 3일 13시 기준)

주식시장: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동 관련 지정학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KOSPI는 -1.6%를 기록했다. KOSPI는 연초 이후 글로벌 증시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에서는 중동 리스크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공급 차질이 영구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 반영되며 S&P 500은 3.4%, 나스닥은 4.4%를 기록했다. 유럽에서는 중동 전쟁 이후 낙폭이 컸던 부동산, IT 등의 업종 중심으로 반등하며 유로스톡스50은 3.4%를 기록했다.

외환시장: 이번 주 달러 인덱스는 100.2에서 100.1로 소폭 하락했다.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란 측도 추가 공격이 없다는 보장 시 종전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면서 달러 인덱스는 전주의 상승 폭을 되돌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중동 지정학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면서 주요국 국채 및 달러는 강세 전환했다.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3주 안에 이란에 대해 매우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며 이란의 모든 중요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이에 대응해 이란 측도 항전 의지를 밝혔으며, 그에 따라 현재 WTI 기준 국제유가는 11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주 달러 대비 위안화 0.5%, 엔화 0.4%, 유로와 원화가 각각 0.2%, 파운드 -0.3%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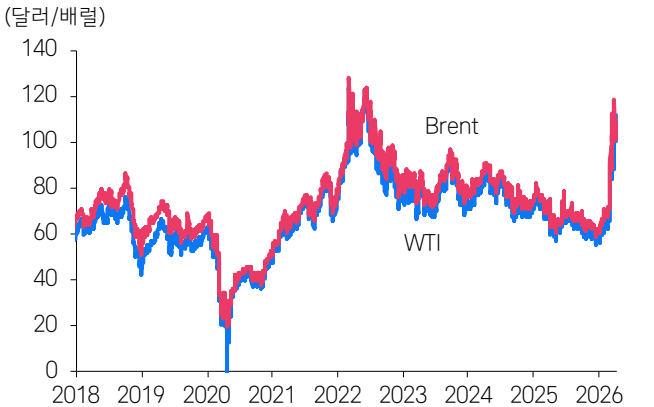
원자재: 이번 주 WTI는 $99.6에서 $111.5로 상승했고, 브렌트는 $112.6에서 $109.0으로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미 국방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대국민 연설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히며 향후 2~3주간 강도 높은 군사 행동을 예고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해당 해협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자력으로 해협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영국은 전력망 재구축 등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착수하고, 독일은 폐쇄 원전 재가동을 위한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주요국이 에너지 안보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요국 주식시장 등락



참고: 4월 3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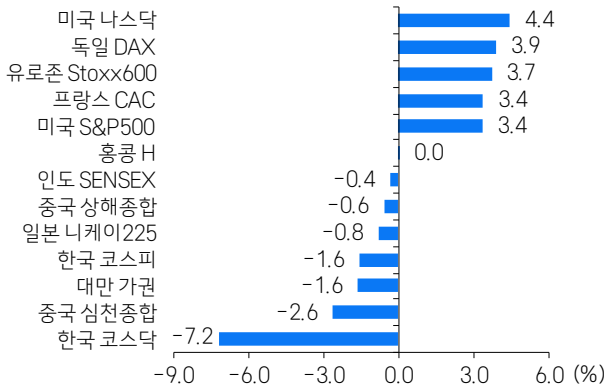
국제 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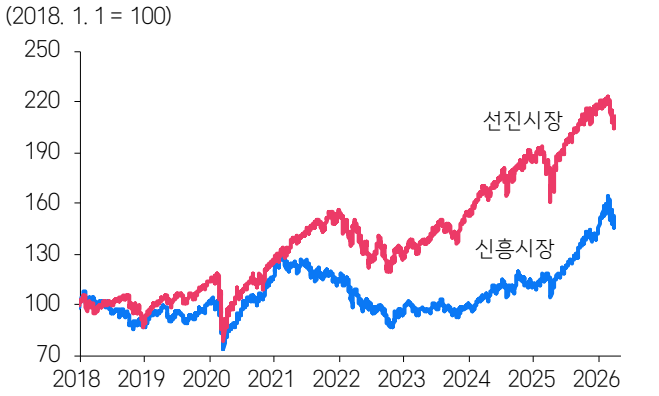
〉〉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증시 performance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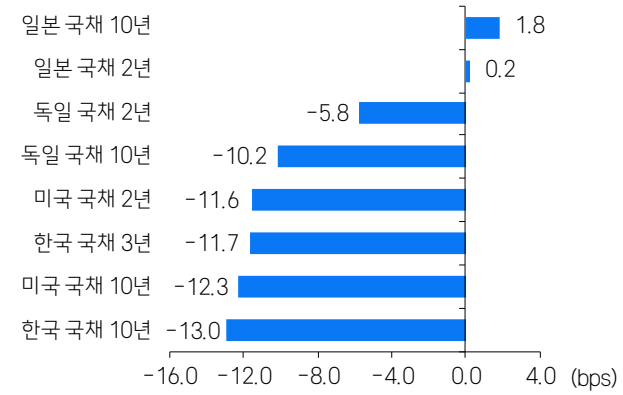
참고: 4월 3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MSCI 선진시장 vs. 신흥시장 (Local Curr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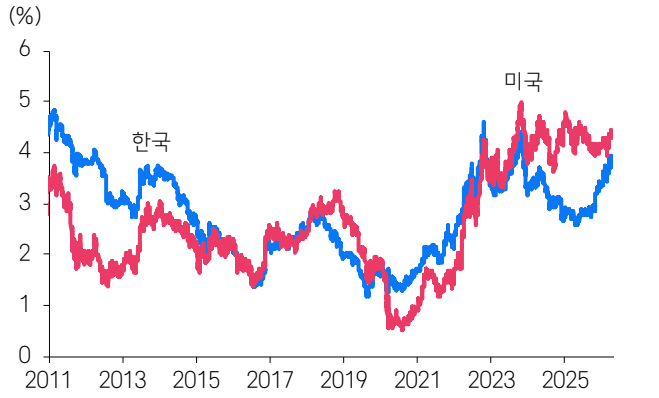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요국 국채 수익률 변화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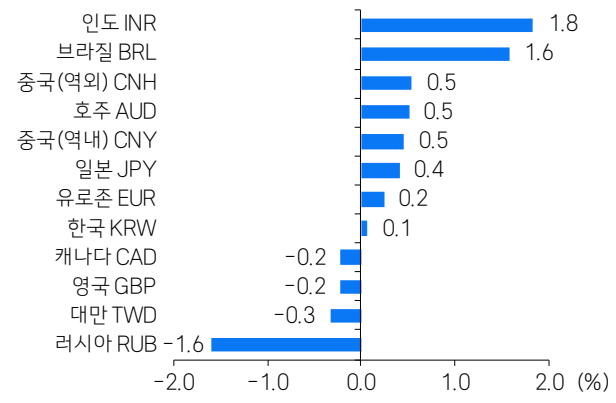
참고: 4월 3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한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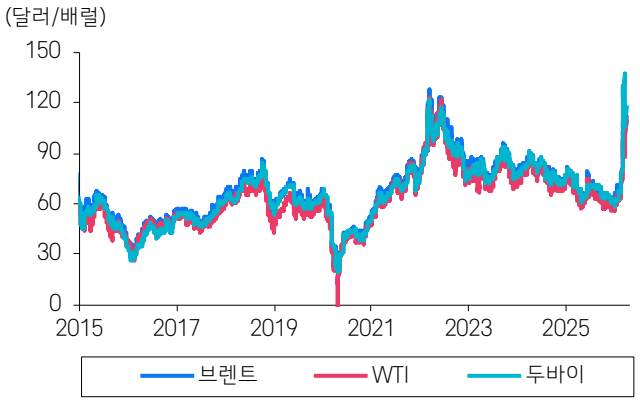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절상률 (전주 말 대비)



참고: 4월 3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국제 유가



자료: Bloomberg

주요국 통화정책 update

국가명	정책 금리 (%)	직전 (%)	통화정책 변화일	정책 금리 변화 (bps) 3개월	1년	변화 내용
주요국						
미국	3.50~3.75	3.75~4.00	25.12.10	0	(75)	3월 FOMC에서 Fed는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 이란 사태와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3월 FOMC 및 파월 의장 기자 회견 내용은 별다른 정책 시그널 없이 "wait-and-see" 모드를 유지. 올해와 내년 예상 금리 인하 횟수(dot-plot)는 각 1회씩으로 기존대로 유지되었고,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향 조정됨. 파월 의장은 "이란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며, 향후 유가 상승의 정도와 지속 기간이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
유로존	2.00	2.25	25.06.05	0	(50)	ECB, 3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 ECB는 2026년 성장률을 0.9%, 물가상승률(HICP)을 2.6%로 전망. 이는 기존 전망(각각 1.2%와 1.9%)과 비교하면 성장은 하향, 물가는 상향됨.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높아졌음을 시사하면서도 매 회의 금리결정은 "데이터 의존적"일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한국	2.50	2.75	25.05.29	0	(25)	한국은행, 2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 2.50%로 동결. 한국은행은 '26년 성장률을 1.8%→2.0%로, 소비자물가를 2.1%→2.2%로 각각 상향 조정. 이창용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에서 물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금융안정과 성장을 살피겠다고 밝혔으며, 3개월 내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금리 인상 논의는 없었다고 언급
일본	0.75	0.50	25.12.19	0	25	일본은행,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0.75%로 동결. BOJ는 물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상하방 양방향의 위험을 모두 언급. 반면, 오후에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총재는 실질 금리가 여전히 낮으며, 일본 경제가 BOJ의 전망에 부합할 경우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며, 춘투 결과를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
영국	3.75	4.00	25.12.18	0	(75)	BOE, 3월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 중앙은행은 성명서를 통해 통화정책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나,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언급
중국	1.40	1.50	25.05.08	0	(10)	중국 인민은행은 3월 양회에서 "적절히 완화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면서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또한, 정책 금리 및 지준율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힘. 다만, "사회의 종합적인 융자 비용을 낮추겠다"는 문구를 "…융자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변경
기타 지역						
멕시코	6.75	7.00	26.03.26	(25)	(225)	멕시코 중앙은행,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중동 갈등의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불확실한 환경이 경제 성장에 계속해서 하방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언급
인도	5.25	5.50	25.12.05	0	(100)	인도 중앙은행,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5.25%로 동결. 중앙은행 측은 견조한 경제 성장과 관세 압력 완화 등을 동결 배경으로 제시
브라질	14.75	15.00	26.03.18	(25)	50	브라질 중앙은행, 3월 통화정책회의에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며 향후 금리 조정은 중동 분쟁의 지속시간과 물가 수준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
튀르키예	37.00	38.00	26.01.22	(100)	(550)	튀르키예 중앙은행,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37.00%로 동결. 통화정책위원회는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금리를 동결하고 완화 기조를 일시적으로 멈출 것을 시사. 또한 인플레이션 전망이 크게 악화될 경우, 통화 정책을 긴축하겠다고 덧붙임
인도네시아	4.75	5.00	25.09.17	0	(10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결정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2026-2027년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5%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호주	4.10	3.85	26.03.17	50	0	호주 중앙은행,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4.10%로 2회 연속 인상. 호주중앙은행은 성명서를 통해 2025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반등했으며,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점을 금리 인상 배경으로 지목
스웨덴	1.75	2.00	25.10.01	0	(50)	스웨덴 중앙은행,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하면서도, 급격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에 대응해 필요시 통화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스위스	0.00	0.25	25.06.19	0	(25)	스위스 중앙은행,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몇 분기 동안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기적으로는 스위스프랑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
러시아	15.00	15.50	26.03.20	(100)	(600)	러시아 중앙은행,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50bp 인하 단행. 중앙은행 측은 러시아의 기준 금리 인하를 지속할 수 있다는 확신이 커졌으며, 기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평가할 것이라 밝힘
뉴질랜드	2.25	2.50	25.11.26	0	(150)	뉴질랜드 중앙은행,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다만, 경기 회복세가 강화하면서 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임
캐나다	2.25	2.50	25.10.29	0	(50)	캐나다 중앙은행,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최근 지표들이 경제활동 둔화를 가리키고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성장에 대한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

	3월 27일	3월 30일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변화율							
							1 week	1 month	3 months	6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주식시장 (지수)														
KOSPI	5,439	5,277	5,052	5,479	5,234	5,364	(1.4)	(7.4)	24.5	51.1	115.7	98.1	116.9	27.3
미국 S&P 500	6,369	6,344	6,529	6,575	6,583	6,583	3.4	(3.4)	(4.0)	(2.0)	22.0	26.3	59.6	(3.8)
일본 NIKKEI 225	53,373	51,886	51,064	53,740	52,463	52,939	(0.8)	(5.9)	5.2	15.7	52.4	34.2	87.8	5.2
영국 FTSE	9,967	10,128	10,176	10,365	10,436	10,436	4.7	(0.5)	4.9	10.0	23.1	31.5	36.0	5.1
독일 DAX	22,301	22,563	22,680	23,299	23,168	23,168	3.9	(2.6)	(5.6)	(5.0)	6.7	26.1	48.7	(5.4)
중국 상해종합	3,914	3,923	3,892	3,949	3,919	3,891	(0.6)	(5.6)	(2.0)	0.2	16.4	26.8	18.0	(2.0)
홍콩 H	8,454	8,399	8,374	8,505	8,457	8,457	0.0	(1.8)	(7.8)	(12.4)	0.4	43.9	21.8	(5.1)
인도 Sensex	73,583	71,948	71,948	73,134	73,320	73,320	(0.4)	(8.6)	(14.5)	(9.7)	(3.9)	(0.8)	24.0	(13.9)
인도네시아 JCI	7,097	7,092	7,048	7,184	7,027	7,027	(1.0)	(11.5)	(19.7)	(13.4)	7.9	(2.0)	2.9	(18.7)
브라질 iBovespa	181,557	182,514	187,462	187,953	188,052	188,052	3.6	2.7	17.1	30.4	43.4	47.7	85.3	16.7
MSCI World (USD)	4,181	4,164	4,258	4,322	4,314	4,314	3.2	(3.2)	(3.0)	(0.5)	22.1	26.5	53.9	(2.6)
MSCI EM (USD)	1,437	1,412	1,397	1,458	1,434	1,434	(0.2)	(6.1)	0.3	4.4	30.1	37.5	45.0	2.1
채권금리 (%)														
한국 국채 3년	3.59	3.54	3.56	3.37	3.48	3.48	(12)	29	55	90	93	15	14	52
한국 국채 10년	3.93	3.90	3.88	3.69	3.80	3.80	(13)	18	41	84	105	35	41	41
미국 국채 2년	3.91	3.83	3.79	3.80	3.80	3.80	(12)	29	32	22	11	(88)	(17)	32
미국 국채 10년	4.43	4.35	4.32	4.32	4.30	4.30	(12)	25	11	19	28	(4)	89	14
일본 국채 10년	2.39	2.37	2.35	2.31	2.39	2.41	2	26	34	74	103	161	202	34
독일 국채 10년	3.09	3.04	3.00	2.99	2.99	2.99	(10)	24	9	29	34	60	74	14
중국 국채 10년	1.82	1.81	1.82	1.82	1.82	1.81	(1)	1	(4)	(6)	9	(48)	(105)	(4)
인도 국채 10년	6.94	7.04	7.04	7.04	7.13	7.13	19	46	53	62	64	3	(17)	55
인도네시아 국채 10년	6.86	6.85	6.86	6.69	6.65	6.65	(21)	11	60	33	(36)	(4)	(13)	58
브라질 국채 10년	14.28	14.26	14.01	14.02	13.98	13.98	(30)	18	37	14	(75)	271	128	25
JPM EMBI Global	253.1	261.6	261.0	251.3	255.4	255.4	2	13	26	1	(76)	(29)	(142)	24
장단기 금리차 (%)														
미국 국채 10년-2년	0.52	0.52	0.52	0.52	0.51	0.51	(1)	(4)	(21)	(3)	16	83	106	(19)
일본 국채 10년-2년	1.00	1.01	1.00	0.95	1.00	1.02	2	13	13	30	41	42	58	13
독일 국채 10년-2년	0.42	0.41	0.39	0.39	0.38	0.38	(4)	(22)	(39)	(30)	(33)	83	80	(36)
중국 국채 10년-2년	0.49	0.50	0.50	0.48	0.48	0.48	(1)	5	3	5	29	24	12	3
한국 국채 10년-3년	0.33	0.35	0.32	0.32	0.32	0.32	(1)	(12)	(14)	(6)	12	20	27	(11)

(다음 페이지에 계속)

주요 금융시장 동향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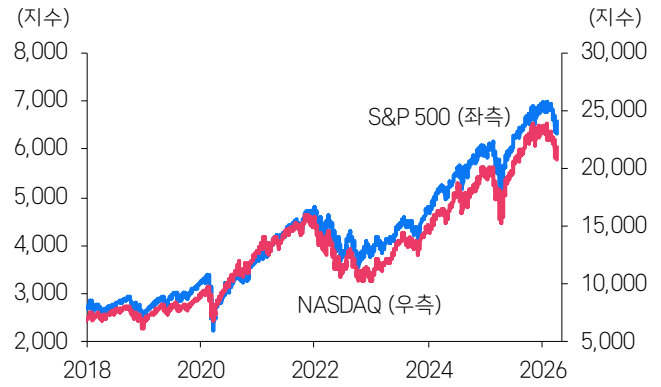
	3월 27일	3월 30일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변화율 (%, bps)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CDS Premium (bps)														
미국 (5년)	40.9	40.9	40.9	40.9	40.9	40.9	0	4	11	(1)	(1)	1	(3)	11
일본 (5년)	17.0	17.0	17.0	17.0	17.0	17.0	0	2	2	5	6	5	1	2
독일 (5년)	31.9	31.9	31.9	31.9	31.9	31.9	0	7	10	8	(7)	(7)	(12)	10
중국 (5년)	4.0	4.0	4.0	4.0	4.0	4.0	0	1	1	(1)	(4)	(4)	(8)	1
한국 (5년)	48.4	48.4	48.4	48.4	48.4	48.4	0	2	5	10	(9)	(25)	(24)	5
인도네시아 (5년)	95.6	95.6	95.6	95.6	95.6	95.6	0	10	27	16	(4)	20	3	27
브라질 (5년)	134.0	134.0	134.0	134.0	134.0	134.0	0	4	(4)	(1)	(55)	(11)	(87)	(4)
멕시코 (5년)	103.5	103.5	103.5	103.5	103.5	103.5	0	14	13	15	(38)	9	(13)	13
상품가격														
CRB지수	368.9	371.3	372.4	371.1	381.0	381.0	3.3	16.8	27.9	27.3	25.5	29.1	40.4	27.5
WTI (달러/배럴)	99.6	102.9	101.4	100.1	111.5	111.5	11.9	49.6	94.6	83.2	66.6	30.6	38.7	94.3
두바이유 (달러/배럴)	128.5	128.5	128.5	105.1	117.3	117.3	(8.7)	45.9	94.8	81.1	61.7	30.8	38.4	89.0
LME 구리 (달러/톤)	12,195	12,224	12,336	12,435	12,360	12,360	1.3	(4.6)	(0.9)	15.3	32.0	33.4	38.6	(0.5)
금 (달러/oz)	4,494	4,511	4,668	4,759	4,677	4,677	4.1	(8.1)	8.0	20.3	50.1	103.3	135.6	8.3
은 (달러/oz)	69.76	70.08	75.17	75.08	73.01	73.02	4.7	(11.0)	0.3	52.1	129.2	168.6	204.4	1.9
옥수수 (센트/부셸)	462.0	455.8	457.8	454.3	452.3	452.3	(2.1)	4.1	3.4	7.9	(1.1)	4.7	(31.2)	2.7
소맥 (센트/부셸)	605.0	607.0	616.3	597.5	598.3	598.3	(1.1)	4.5	18.1	16.1	11.6	7.6	(13.7)	18.0
달러화 대비 환율														
한국 원화	1,511	1,520	1,519	1,513	1,512	1,509	0.1	(1.3)	(4.3)	(6.8)	(3.9)	(10.6)	(12.8)	(4.6)
일본 엔화	160.31	159.71	158.72	158.82	159.60	159.67	0.4	(1.2)	(1.8)	(7.6)	(8.5)	(5.0)	(17.0)	(1.8)
유로화	1.151	1.147	1.155	1.159	1.154	1.154	0.2	(0.7)	(1.6)	(1.8)	4.4	6.5	5.8	(1.8)
중국 위안화 (역내)	6.911	6.913	6.894	6.876	6.885	6.881	0.4	0.5	1.5	3.5	5.8	5.1	(0.1)	1.5
중국 위안화 (역외)	6.920	6.916	6.889	6.877	6.890	6.884	0.5	0.5	1.3	3.7	5.8	5.3	(0.1)	1.3
인도 루피화	94.82	94.83	94.83	94.83	93.11	93.11	1.8	(1.8)	(3.1)	(4.6)	(8.2)	(10.4)	(11.6)	(3.4)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6,965	16,992	16,995	16,980	17,000	17,000	(0.2)	(0.8)	(1.6)	(2.7)	(2.6)	(6.4)	(11.9)	(1.8)
브라질 헤알화	5.239	5.254	5.181	5.155	5.157	5.157	1.6	2.2	5.2	3.5	9.2	(2.3)	(1.8)	6.2
달러 인덱스	100.15	100.51	99.96	99.65	100.03	100.03	(0.1)	1.0	1.6	2.4	(2.0)	(4.0)	(2.0)	1.7
아시아 달러 인덱스	91.3	91.1	91.1	91.6	91.6	91.7	0.4	(0.4)	(0.6)	(0.3)	2.1	0.9	(3.1)	(0.6)
JPM 이머징 통화지수	45.89	45.90	46.22	46.30	46.37	46.37	1.1	(0.5)	(0.4)	0.9	3.2	(0.9)	(8.4)	(0.5)

참고: 4월 3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주요 금융시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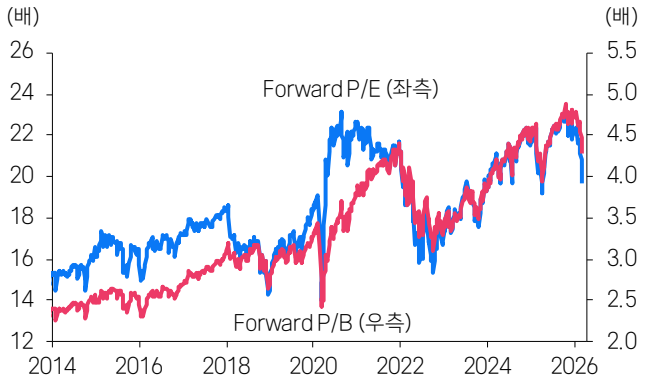
〉〉 미국

S&P 500과 NASDAQ 명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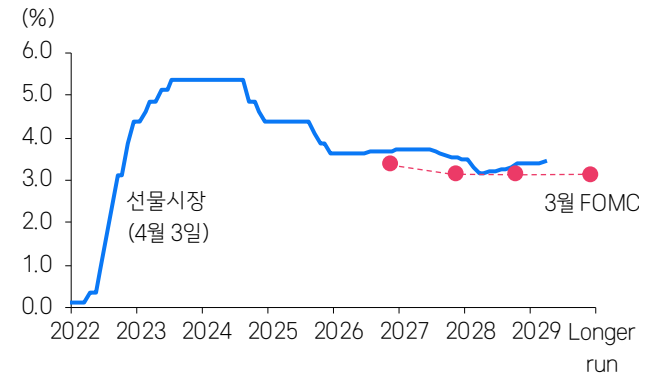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P 500: Forward P/E와 P/B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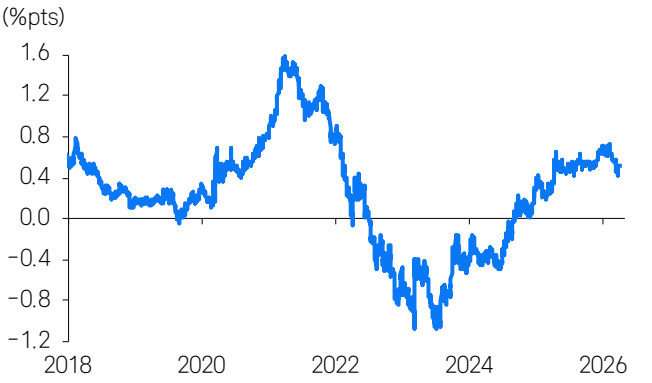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기준 금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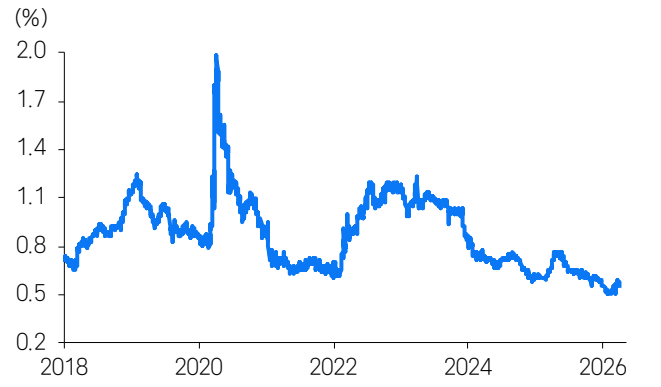
참고: 발표된 기준 금리는 목표 범위의 중간값 기입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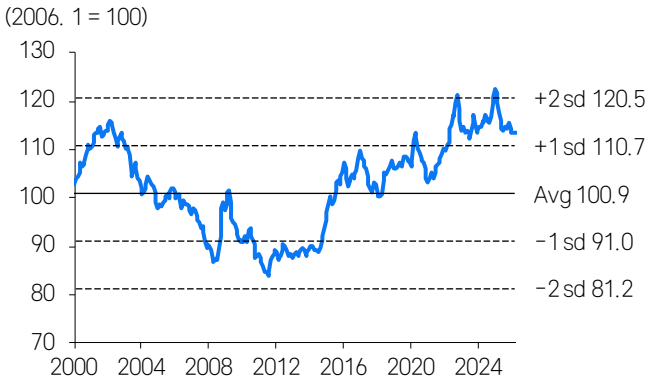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회사채 Baa - Aaa 스프레드 추이



자료: Moody's,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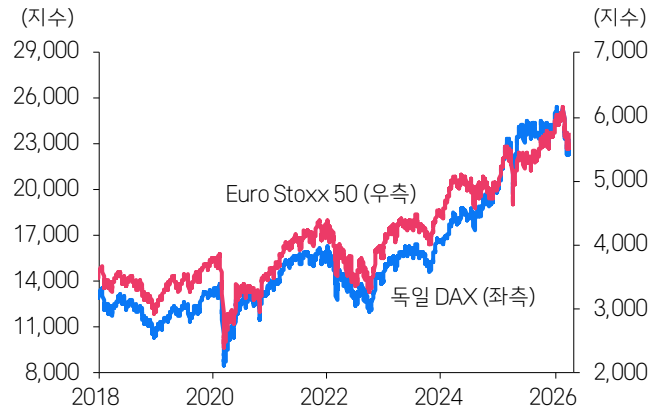
Fed 달러 지수 추이



자료: Federal Reserv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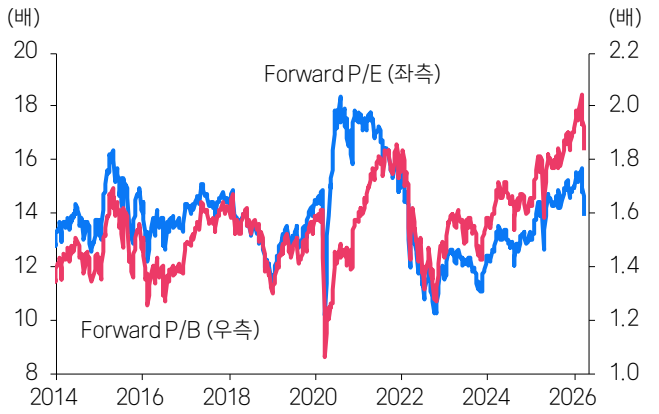
〉〉 유럽

독일 DAX 지수와 Euro Stoxx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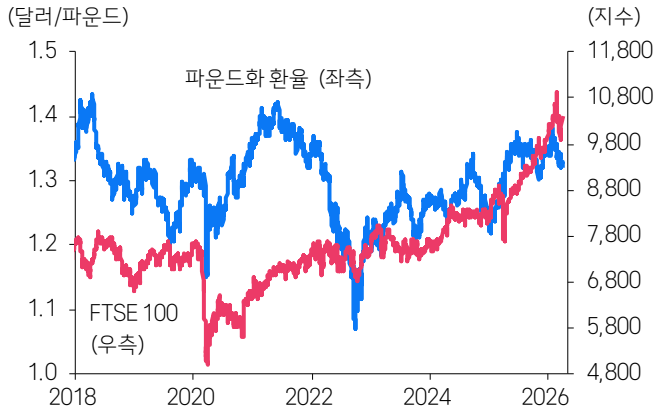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EMU 12개월 forward P/E와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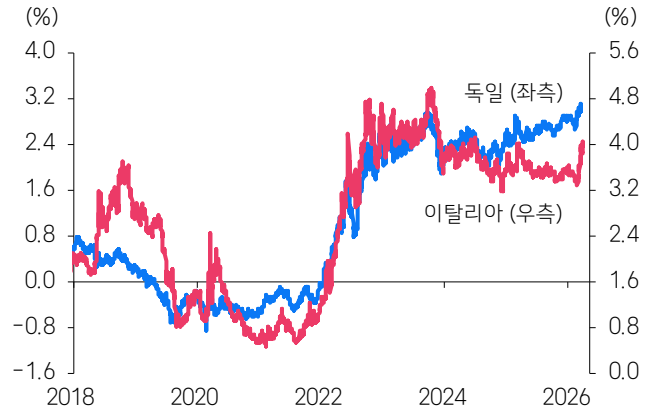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영국 FTSE100과 파운드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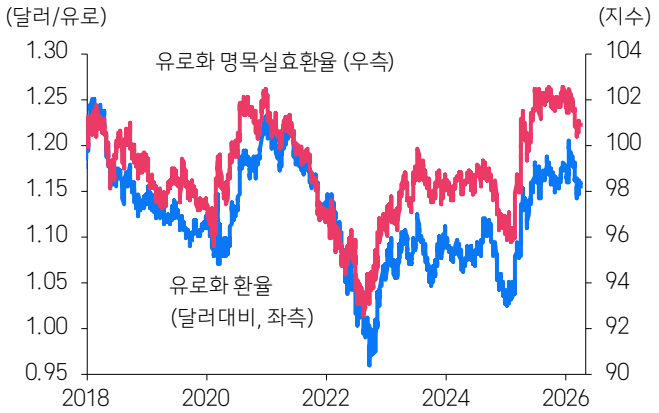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독일,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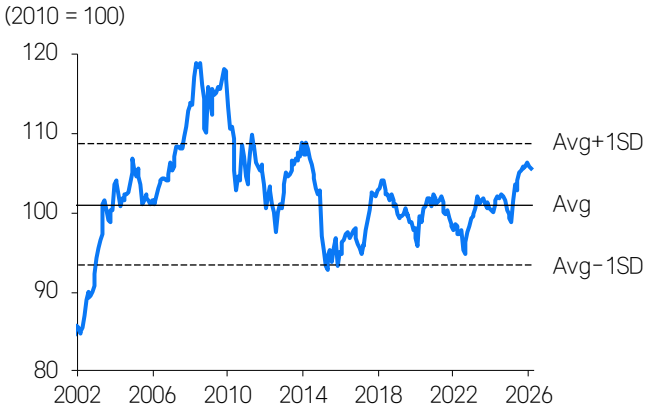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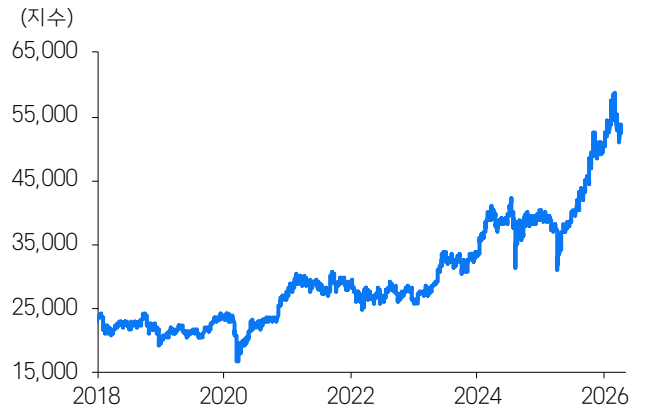
유로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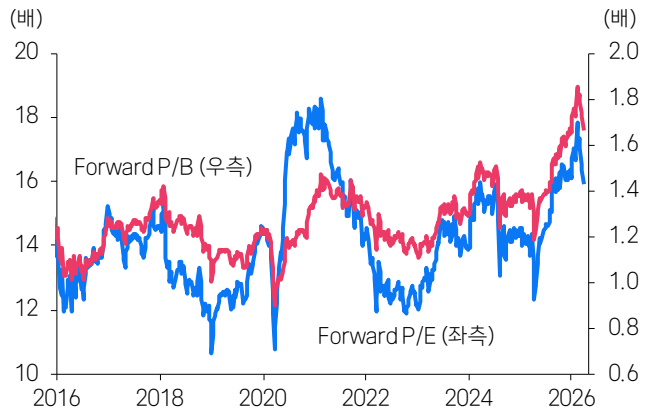
〉〉 일본

일본 NIKKEI225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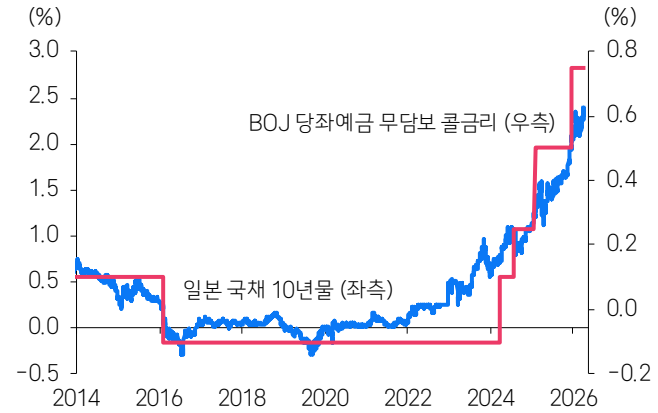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Japan: Forward P/E와 P/B 추이



자료: Refinitiv

BOJ 정책 금리, 일본 국채 10년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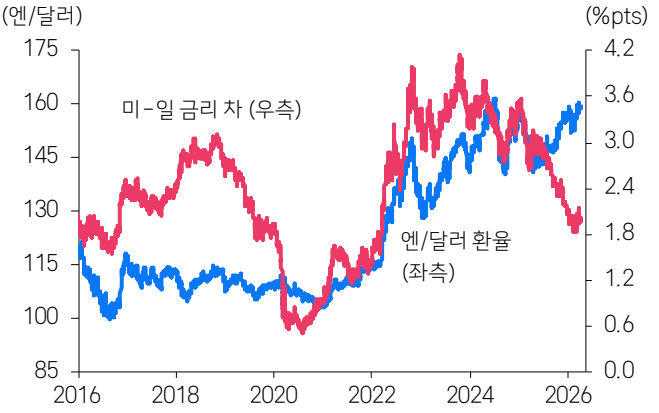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일본 국채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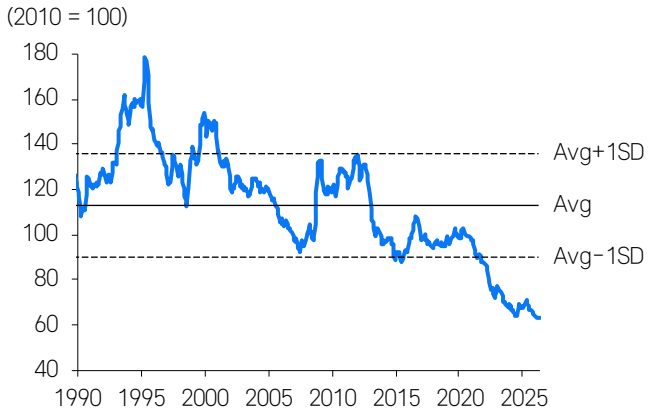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일 금리 차와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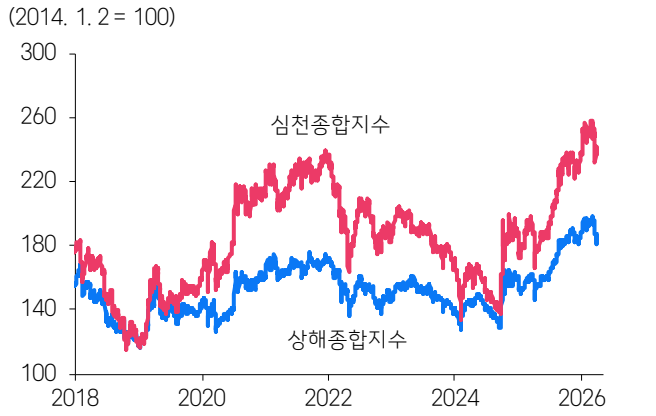
엔화 실질 실효 환율



자료: BIS, 삼성증권

〉〉 중국

중국 상해 및 심천종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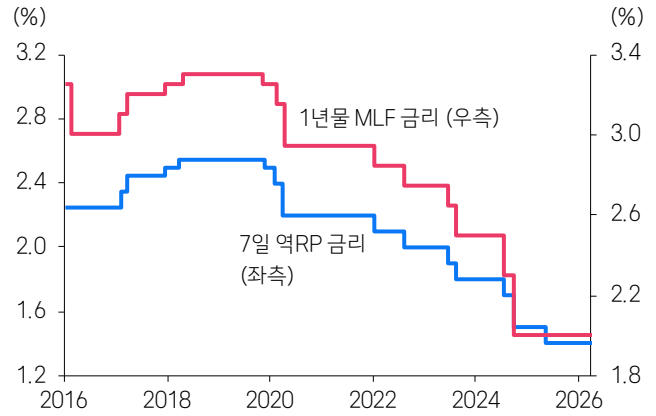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해종합 지수 Forward P/E Valuation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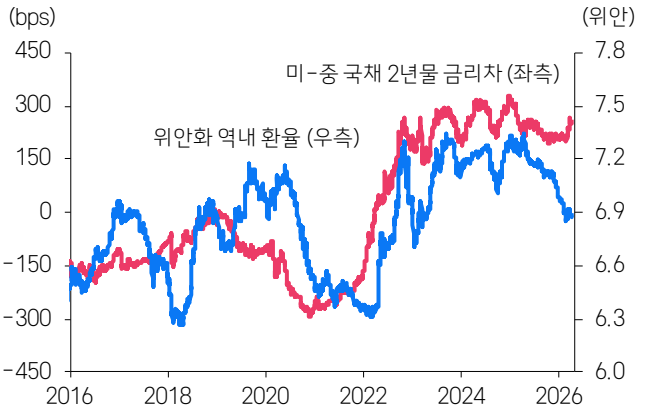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1년물 MLF 금리와 7일물 역RP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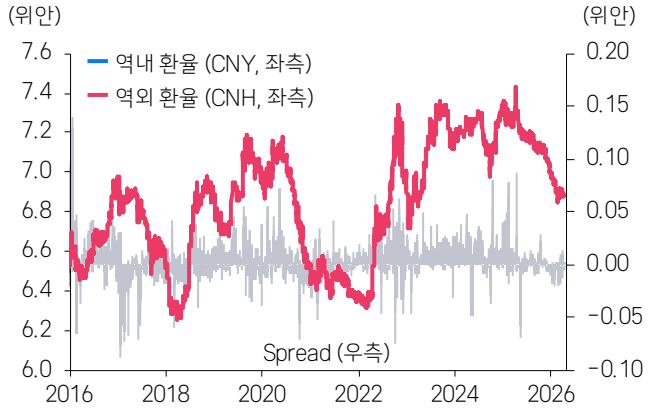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중 금리 차와 위안화 역내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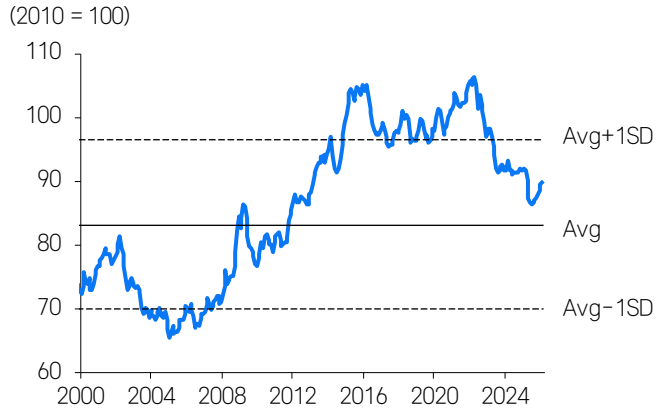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위안화 환율 추이: 역내(CNY) vs. 역외(CNH)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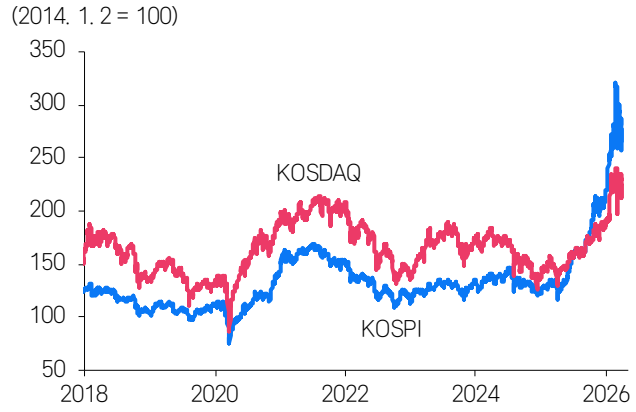
위안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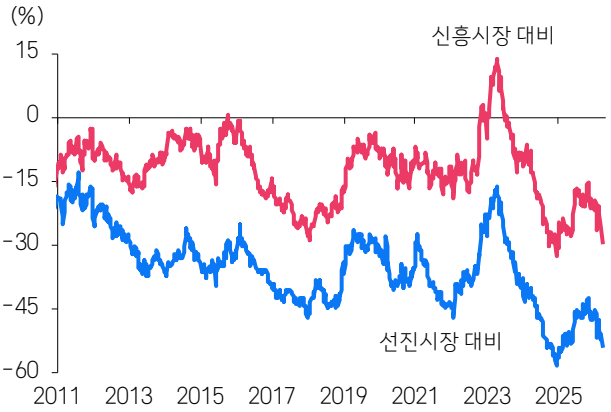
〉〉 한국

한국 KOSPI와 KOSDAQ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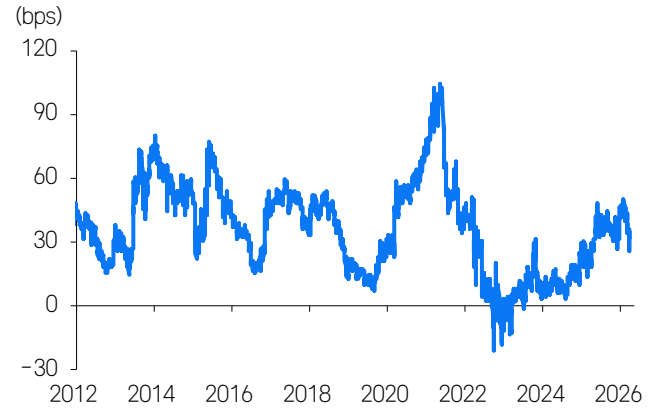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OSPI Forward P/E 밸류에이션 할증/할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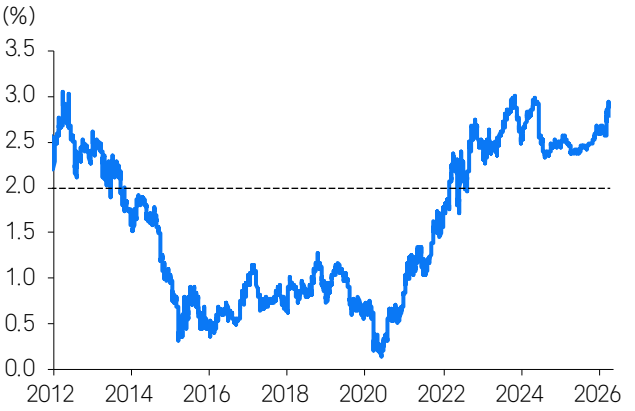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장단기 금리 차 (국고 10년-국고 3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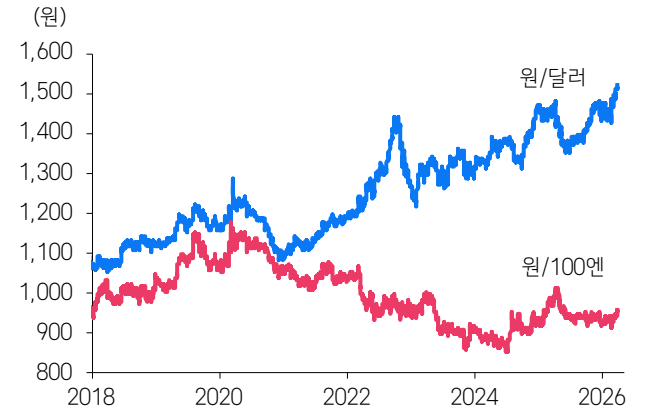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10년 BE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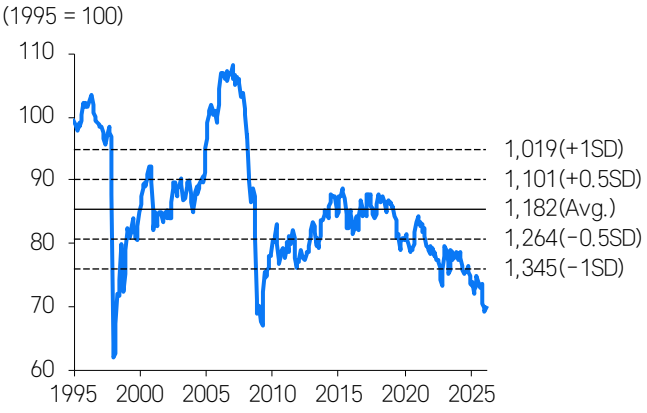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와 원/100엔 환율



자료: Bloomberg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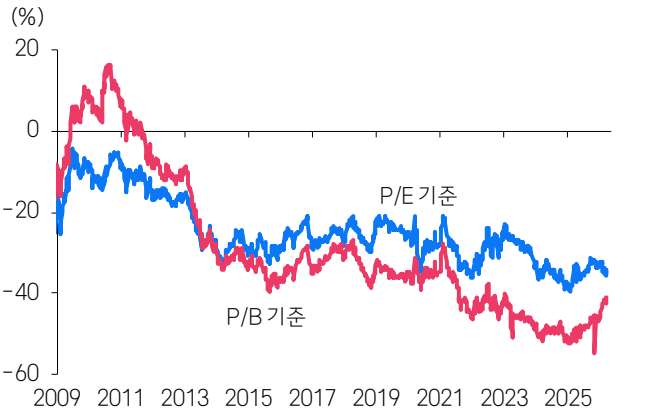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 신흥국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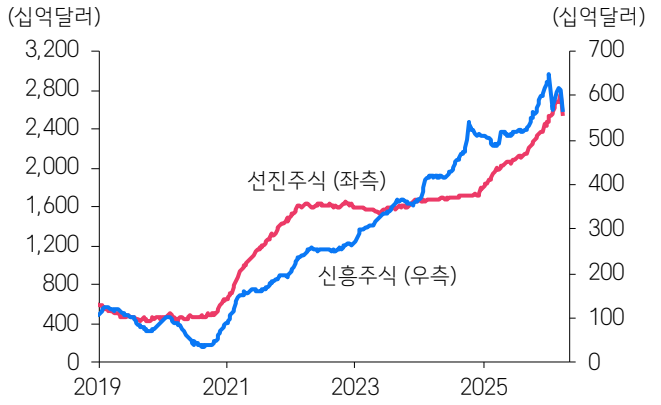
참고: MSCI USD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할증/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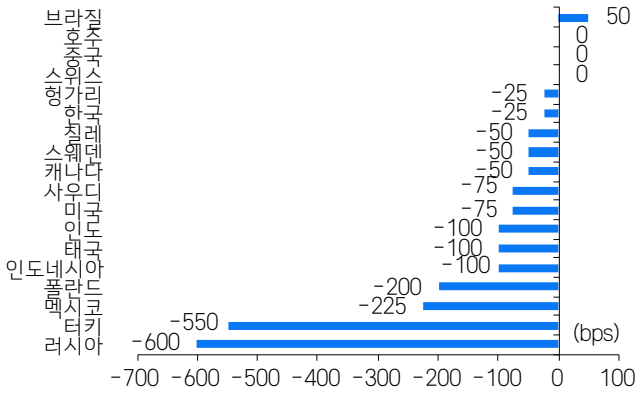
참고: 12개월 forward P/E 및 P/B.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신흥 시장 주식형 펀드 누적 Fund Flow



자료: EPFR, 삼성증권

주요국 정책 금리 변화 (12개월 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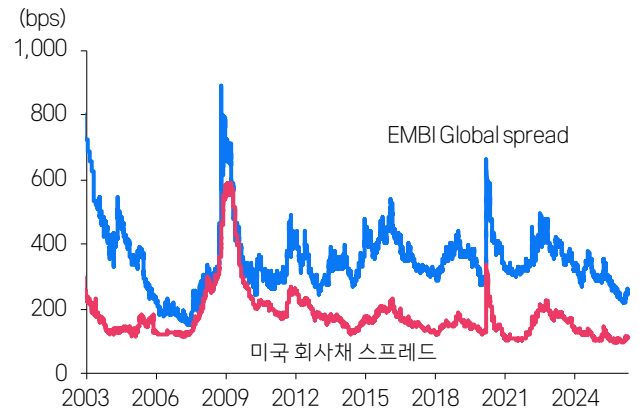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JPMorgan Emerging Currency Index

자료: JPMorgan,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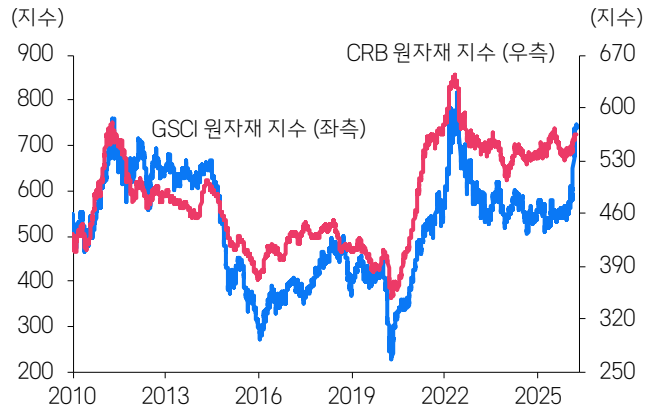
EMBI Spread와 미국 회사채(BBB)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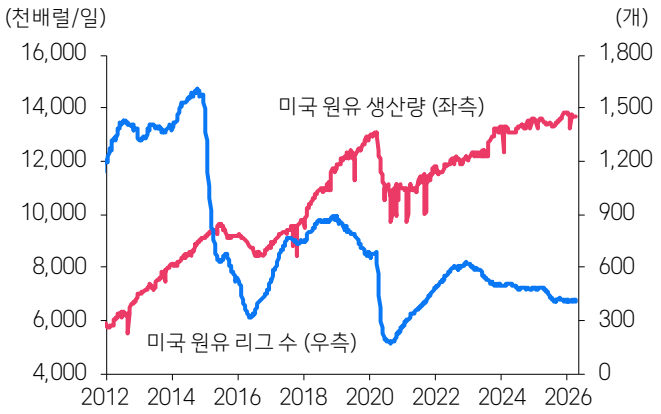
〉〉 주요 원자재

GSCI Commodity Index / CRB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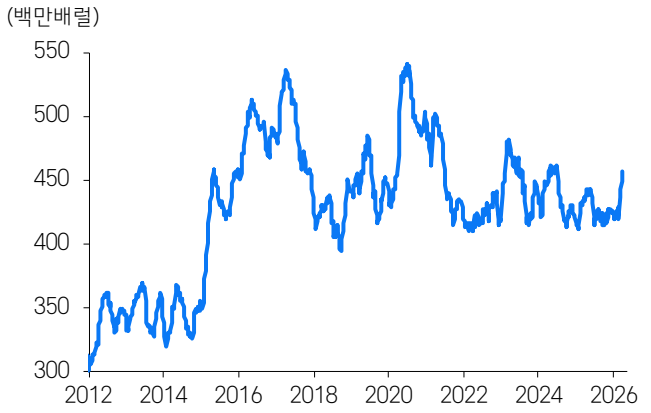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원유 리그 수와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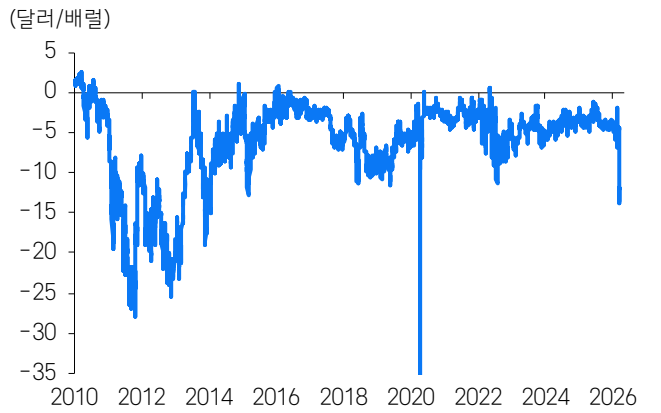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Baker Hughes

미국 원유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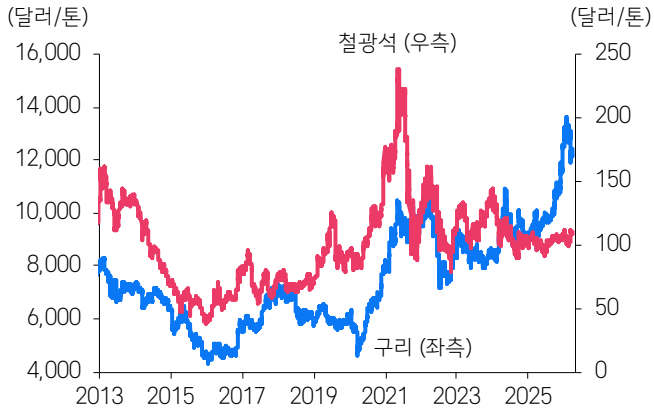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WTI/Brent 유가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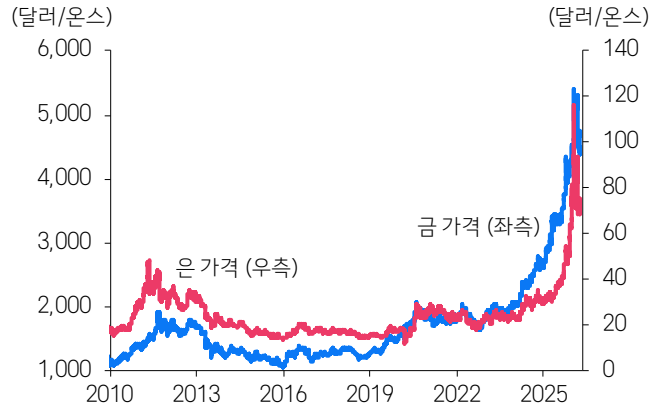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구리 및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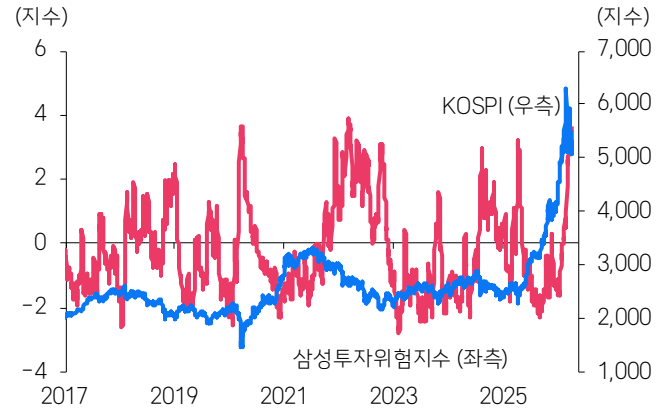
금/은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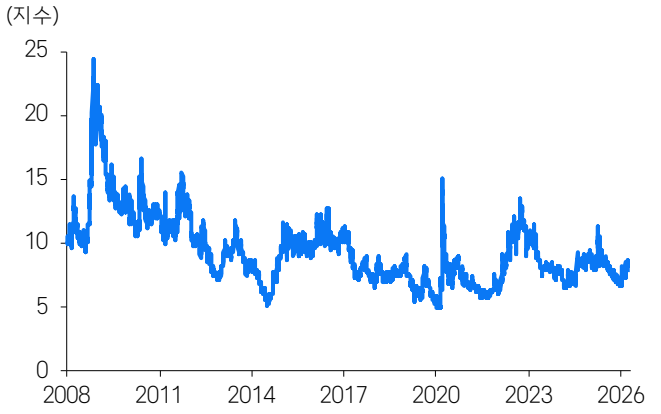
〉〉 변동성 지표와 CDS Premium

삼성 투자위험 지수(Samsung Risk Index)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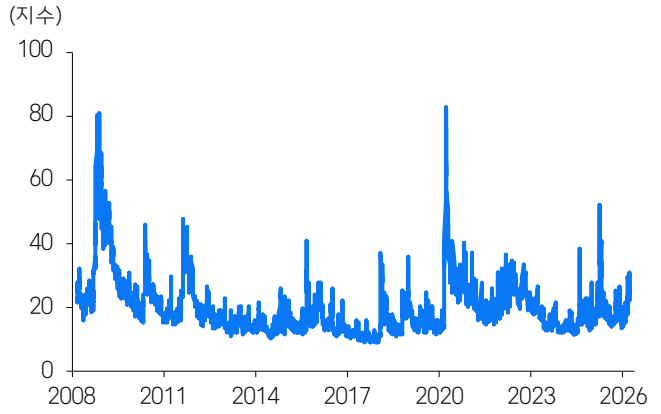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Bloomberg, 삼성증권

FX Volatil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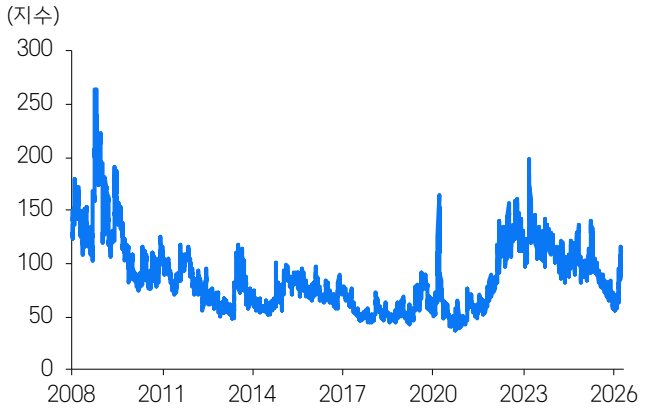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VI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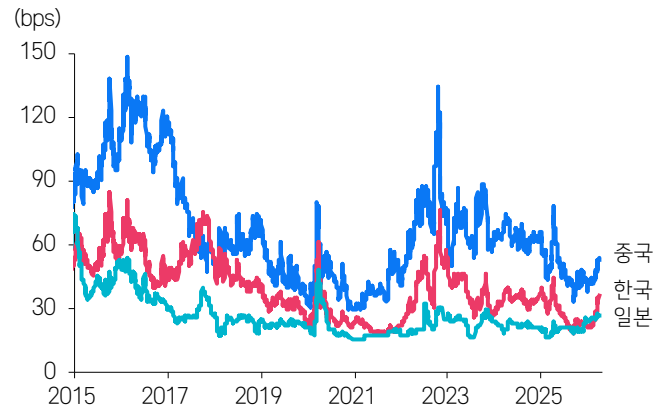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ov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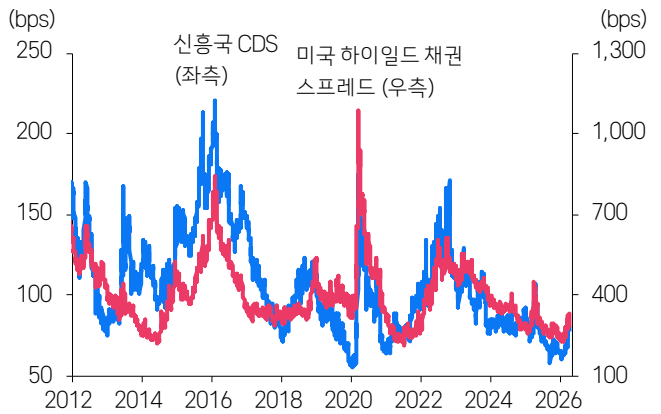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 중국, 일본 CDS premium



참고: 5년물 기준
자료: Refinitiv

신흥국 CDS와 미국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



참고: S&P Global EM CDX 구성국 중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제외, 각국 CDS를 명목 GDP로 가중 평균하였음. 2022년 3월부터 러시아 제외
자료: Refinitiv,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